

문화광장



고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장

신인류로 살아가기

최근에 중국 차마고도의 마을과 연휴를 빙자해 육지 나들이를 다녀왔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인류는 수백만년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 잠시도 쉬질 않는다. 요즘 현대인류로 살기도 쉽지 않다.

농사일을 하고 있고, 하천 주변에서는 학생들이 한가롭게 수다를 떨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여행객을 태운 마차도 마을 안길을 천천히 누빈다. 우린 한 가게안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부부가 운영하는 듯 예전의 스피커와 전축, 카메라와 사진들이 채워져 있다. 주인부부는 사진작가처럼 보인다. 은이 유명하지 공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거리의 나뭇잎을 치우는 사람도 보인다. 멀리 설산을 이룬다. 마을 전체가 옛모습이다. 자동차는 멀리 있는 주차장에서 걸어야 마을에 진입할 수 있다.

적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유원지 음식점도 조용히 먹을 수 없다. 밥을 먹는 건지 것을 먹는 건지 한가 때우는 기분이다. 새로 출렁다리 만들어져 있는 저수지에 펜션을 잡았다. 다리를 건너는데 바로 옆 주차장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과 식당에서 빠져나온 사람들과 뒤엉켜 다리를 건너다. 멋진 야경에 사진 찍기도 버겁다. 아쉬워 아침에 한가로이 다리를 건너려고 했는데, 9시부터 문을 연다는 팻말이 보일 뿐이다. 이게 한국사람이 즐기는 연휴인가 싶다.

데,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자연환경의 훼손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가 어렵지만 하다. 삶의 정신적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 새로움과 변화에 대한 인식이 결국 더불어 행복하고자 하는 철학적 빈곤으로 인해 편향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물질만능사회로 만들어가는 느낌이다.

사설

40년생 가로수 삭독 자른 근시안 행정

지난 3월 제주를 습격한 미세먼지는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그간 겪었던 황사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뿌연 잿빛이 제주의 봄날을 통째로 삼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법찾기는 지난한 일

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제주시는 올 2월 사라봉 공원에서 이니스프리모음재단, 제주생명미술국민운동과 함께 '숲속의 제주 만들기 500만 그루 나무심기' 협약을 맺고 녹나무를 식수하며, 앞으로 10년간 500만그루의 나무심기를 천명했습니다.

열린마당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 안전을 위협한다



김정혜 제주시 이도2동행정복지센터

광고의 성공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인터넷, SNS 각종 매체의 발달로 광고홍보기법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길을 걷다가 발밑에 널부러진 광고 전단지

는 없다. 홍보를 위해서라면 효과만을 따져 안전과 이웃의 불편은 모른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불법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물론 우리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뉴스-in

도 기획조정실장 "세정운영 아이디어 청취"

도민 참여형 세정모니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 세정모니터'를 5월 중 구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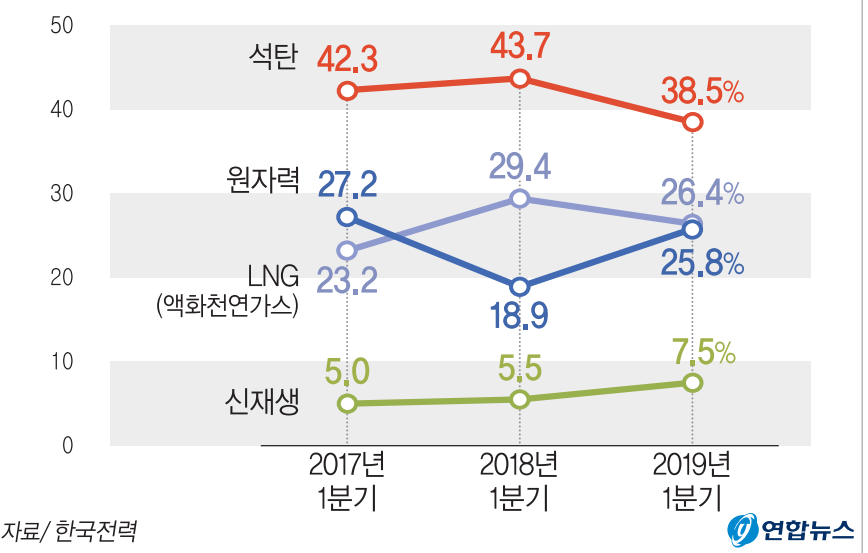
대한 상황모니터 화면을 개선하고 기상정보표출 프로그램 등 상황실 기능 강화에 주력. 시 관계자는 "사업을 계기로 재난대응체 확립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단 한 번의 재난사고가 없도록 사전 해재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공포로 나무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며칠 전 제주시 외도1동의 40년생 빛나무 등 10그루를 외도동에서 삭독 잘라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릅드리 나무가 잘려나간 이유는 낙엽과 주차선 침범에 따른 청소와 주차 민원 때문이라는 게 동의 입찰입니다.

그래픽 뉴스

전력원별 발전비중 추이



부고 안승진(주)범영엔지니어링 대표 아버지 순환공 호순(향년 90세)께서 서기 2019년 5월 11일 23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19년 5월 10일 주주전원 서면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100,000,000원 중 금99,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 1,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써 1주당 금10,000원의 주식 9,900주에 대하여 소유주의 비율로 무상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를 100주로 할것을 결의하였음.

방앗음 위치 노형동 제주일고 남측 150m지점 도화정원룸 102호 제주시 진군길 46-4 연락처 010-7120-3609

서귀포시정 소식 정방동 '시와 음악의 밤' 행사 개최 알림 ○ 행사일시 : 2019. 5. 22(수) 17:30~19:30 ○ 행사장소 : 이충섭미술관 잔디마당

제주시정 소식 2019년도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모집 ○모집기간 : 2019. 5. 3.(금)~2019. 5. 17.(금) ○모집인원 : 190명(안전요원 153 보트요원 30, 보건요원 7명)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시방법원 2017고정654 상해 피고인 한영애 위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방앗음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 진흥원 판매장 등 연락처 064-783-8987, 010-5755-8987,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 연락처 : 안승진 010-3469-3369, 안태진 010-3587-2016 안일진 010-8785-8607, 안연일 010-4006-4352 안연정 010-6798-3328, 김태현 010-9840-5157 오임순 010-5532-2013, 변연실 010-9246-8607 김태진 010-3699-4352, 김익현 010-3698-3537